

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
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	배포일시	2018. 6. 7(목) / 총5매(본문3, 참고2)
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성호, 사무관 장창석, 주무관 허예원 • ☎ (044)201-3517, 3522
국토부 해외건설지원과	담당자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김목진 • ☎ (044)201-3526, 3527
한국토지주택공사	담당자	• 해외사업운영부 차장 황희정, 차장 김운영 • ☎ (055)922-4375, 4379
한국수자원공사	담당자	• 해외사업처 팀장 권기동, 차장 이흥주 • ☎ (042)629-4121
한국도로공사	담당자	• 해외사업처 부장 김재웅, 차장 방민정 • ☎ (054)811-3810, 3813
한국철도시설공단	담당자	• 해외사업1처장 김충기, 사업지원부장 김현성 • ☎ (042)607-3411, 3272
한국국토정보공사	담당자	• 일자리혁신부 팀장 김길근 • ☎ (063)906-5037
보 도 일 시	2018년 6월 8일(금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8.(금) 6:00 이후 보도 가능	

인프라 분야 정상외교 성과 창출...민간·공공·정부가 힘을 모은다. 정상외교 연계 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「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」 및 공기업 공동 해외 청년인턴십 운영을 위한 MOU 체결식 개최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, 이하 국토부)가 주요 인프라 공기업과 손을 잡고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.
 - 국토부는 6월 8일(금) 인프라 공기업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, 정책 금융기관,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상외교 성과 창출을 위한 해외 인프라 진출 확대 전략회의(이하 전략회의)를 개최했다.
- 이번 회의는 최근 해외건설 수주 급감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정상외교를 수주성으로 연계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.
 - 국토부 손병석 1차관은 “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감의 근본적 원인은 투자개발사업 중심으로 변해가는 해외 인프라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핵심이다.”라고 지적하면서,

- “앞으로 정상외교와 연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, 그중에서도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- 또한 “6월 중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(이하 KIND)가 설립되는데, 사업개발, 금융조달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한 투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KIND와 협력해주시기 바란다.”라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.
- 이어서 “인프라 사업의 각 단계를 연계하는 협업을 시작으로, 다양한 분야가 협업하는 ‘팀 코리아’ 진출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.”라며 이를 위한 공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.

< 사례: 팀코리아 진출 계획 >

- ①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(한국토지주택공사) : 스마트팜, 지역냉방 등 다양한 분야 스마트시티 기술이 결합된 팀 코리아 진출 적극 추진
- ② 베트남 북남고속도로(도로공사) :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참가조건·요구사항 분석, 리스크 저감방안 마련 등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통한 동반진출
- ③ 인니 경천철(철도시설공단) : 정부간 협력에 기반한 사업협의를 통해 하부 토목사업뿐만 아니라 철도차량+신호·통신+사업관리 등 철도기술 패키지 수출

□ 이 날 전략회의에 앞서 ‘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’의 일환으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임석 하에 5개 인프라 공기업*은 ‘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’(가칭 WIFI: World Infra Frontier Internship)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.

* 업무협약 체결 기업: 한국토지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한국철도시설공단, 한국국토정보공사

○ 협약의 주요 내용은, ▲ 해외 청년 인턴십 대상자 공동 채용 ▲ 해외 청년 인턴 파견 전 공동 교육 ▲ 청년 인턴 운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 교환 ▲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.

- ‘해외 인프라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’은 올 연말을 시작으로 연 2회 정기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며, 이를 통해 그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중 하나인 공기업에서의 해외 근무 경험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된다.
- 올해 첫 삽을 뜨는 해외 청년 인턴 1기의 채용인원은 약 26명으로 채용 후 1개월간의 국내 교육을 거쳐 6개월간 공기업의 해외현장에서 근무하게 된다.
 - 채용 및 운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인턴 대상자 선발 공고(10월 예정) 시 확인해 볼 수 있다.
-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“해외 청년 인턴은 열정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양성함으로써, 해외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.”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장창석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공기업 공동 '해외인프라 청년인턴십' 업무협약식 및 정상외교 성과확대를 위한 전략회의 개최 계획

□ 개 요

- (목 적)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간 협업 유도, 공기업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해외인프라 시장 민관동반진출 확대 추진
- (時/所) '18.6.8(금) 10:00 / 국토발전전시관 5층 회의실
- (참 석) 1차관님(주재), 공공기관(9개), 연구원(4개), 정책금융기관(수은·무보),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, 해외건설협회

※ 행사 개요

구 분	소요	내 용	참 석	비 고
1부	'30	청년인턴 MOU 체결식	차관님, MOU체결 공기업 (LH, 도공, 수공, 철도공단, LX)	대외공개
2부	'80	인프라진출확대전략회의	차관님, 산하공공기관, 연구원 등	비공개

□ 세부 일정

시 간	소요	내 용	비 고
~ 10:00		차관님 도착(1층 로비)	(영점) 건설정책국장
10:00~10:03	'3	개식 선언 및 참석자 소개	(사회) 해외건설정책과장
10:03~10:06	'3	해외인프라 청년인턴십 제도 보고	LH
10:03~10:09	'3	차관님 인사말씀	(사회) 해외건설정책과장
10:09~10:24	'15	각 기관장 인사말씀(3분씩)	LH·도공·수공·철도공단·LX 순
10:24~10:27	'3	MOU 체결(차관님은 뒤편 입석)	1차 서명 후 교환하여 2차~5차 서명
10:27~10:30	'3	기념촬영	
10:30~10:35	'5	휴식 및 환담	차관님 환담장 이동
10:35~10:38	'3	차관님 인사말씀	(사회) 해외건설정책과장
10:38~10:41	'3	해외건설 수주동향 및 대응방안	해외건설정책과장
10:41~11:20	'39	분야별 해외진출 추진계획 및 민관협력방안(3분씩)	공공기관
11:20~11:40	'20	자유토론	
11:40~11:45	'5	협조요청 사항 등 답변	건설정책국장
11:45~11:50	'5	차관님 마무리 말씀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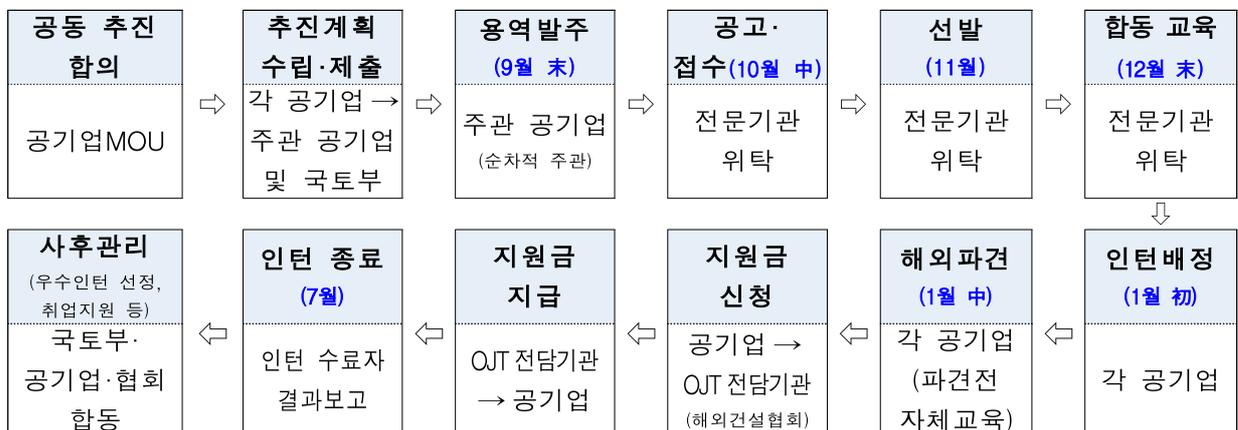
□ 개 요

- 해외건설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프라 공기업들이 공동으로 해외 현장 인턴을 선발·파견 추진

□ 추진방안

- (해외경험 제공) 공기업 해외현장(수주전, 건설, 운영 등)에 인턴 파견*
 - * 공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체험형 인턴제를 활용, 청년들에게 기회 제공
- (공기업 입장) 행정적·재정적 부담 최소화 및 해외현장 지원 강화
- (청년 입장) 취업전 인프라 공기업에 대한 경험과 해외 체류 및 현장 업무 경험을 할 수 있고 인센티브 등 취업에도 도움
- (공기업간 협업) 전문기관을 통한 공동 선발 및 합동 교육(2주 내외) 후 인력 배정, 자체 교육(2주 내외)을 거쳐 파견
 - (정부 지원) 공기업은 인턴 급여, 체류 지원(숙소 또는 주거비), 교육·관리·감독 업무 수행, 정부에서 일부 보조* 및 협업 지원
 - * 올해는 시범적으로 공기업 자체 추진하고 소요예산 검토 후 내년부터 예산 지원
- (채용 연계) 인턴 수료자 채용시 인센티브 제공(각 기관 기준에 따름), 현지 진출기업과 정보 공유를 통한 ODA 현장전문가 등 채용시 유도

□ 추진 절차



- ▲ 토지주택공사 유대진 부사장: 청년들이 해외에서 진취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.
- ▲ 수자원공사 김봉재 부사장: 해외 청년 인턴십을 통해 청년들이 해외에서 전문을 넓히고 자신감을 쌓아 인프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.
- ▲ 도로공사 김광수 부사장: 해외 청년 인턴십을 통해 도공과 청년 모두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될 것이며, 도공에서의 인턴 경험이 청년의 취업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.
- ▲ 철도시설공단 전만경 부이사장: 정부의 '新남방정책'에 따라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철도의 해외진출이 본격화 될 전망이므로 해외철도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.
- ▲ 국토정보공사 조만승 사장 직무대행: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해외 사업을 발굴해나가고, 공공기관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.